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행·지연·중단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영구화 수순을 밟으면서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선행 조치가 기대하기 힘든 대목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북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 굳어졌다. 북핵의 고도화·영구화, 미·중 간 지역 내 경쟁 구도 등의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된 한반도 그랜드 플랜(Grand Plan)의 수립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그랜드 플랜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 지향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대북 역지력의 바탕하에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을 이끌기 위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 정립이 중요하다. 대북 원칙의 신중적인 적용을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북실력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미·대중 외교를 통한 6자회담 당사국 간 다자 안보 협력체까지 도모하는 큰 틀의 타협이 필요하다.

플랜은 세 개의 세부 트랙이 요구된다. 첫째, 비핵화 트랙이다. 미·북이 중심이 되고, 한·중이 지원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체제 트랙이다.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보장하며, 일·러가 지원하여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안보 협력 트랙이다. 미·중 간 안보 협력 문제를 개진한 후 남·북·일·러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플랜의 이행 방식은 일괄 타결, 동시 행동, 병렬적 이행·검증을 의해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행 기구는 비핵화, 평화 체제, 개발 협력, 동북아 평화 협력 등 4개 분과를 둔 가칭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가 필요하다. 협력 기구는 국제기구로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이행·검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랜드 플랜의 합의 이전과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 간 경제 협력 복원과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한 군사 협력이 추진되면 금상첨화이다.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주장하는 이론적 담론이나 암묵적인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제재·압박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제재·압박 국면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북한 태도 변화와 핵 포기를 상정하는 것

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플랜은 국면 전환의 과정에서 미·중보다 앞서서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창조적 대안을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자세와 노력이다.

미·중은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 유지 또는 확대를 추진한다.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가 더 편한 미·중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미·중은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역학이 작용하여 북핵도 자국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안으로 쉽게 전환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진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준을 두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중 의무장관 한 한반도 내 사드 전력 배치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맞고있었다는 관측이 이를 방증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를 걱정한다. 역사사지의 자세에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한반도 그랜드 플랜은 역사사지의 자세에 토대한다. 남북간 대화의 틀이 마련됐다. 한미 동맹은 튼튼하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반도 그랜드 플랜의 내용을 채우고 작동 기회를 만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종교칼럼

‘첫 마음’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은



유 기 영  
순천 매곡동선당 주임신부

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가장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수품 후보자들이 바닷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해마다 참석하는 서품식이지만 늘 새로운 감동을 받고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사제로서의 다짐은,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과 만나 부딪치며 깨치는 동안 조금씩 식어가곤 합니다. 내 맘 같지 않은 교우들을 만나서 상처받기도 하고, 사목적 미숙함이나 인간적 한계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겠다는 첫 마음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필자 역시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 자신에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고, 과연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 사제의 삶을 살아가 수 있을꺼냐는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나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필자로 하여금 매해 1월 서품식장에서 만나게 되는 후배 신부님들의 설렘 가득한 모습은, 바다에 부족했던 그때 그

순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저의 첫 마음을 일깨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 님이셨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기거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사제 서품을 받던 ‘그때의 내’가 시간이 흘러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는 ‘변해버린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제 서품식은 필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첫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처음’은 그 누구에게나 늘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첫 입학, 첫 천구, 첫 사랑, 첫 아이, 첫 내 집 마련, 첫눈, 첫 선물 등등. ‘처음’이란 단어는 낯설음, 두려움뿐만 아니라 설렘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첫 마음’은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5일은 새로 수품 된 신부님

들이 첫 발령지로 가서 사목 생활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디 서품식장에서 느꼈을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첫 부임지에 가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 하심을 잘 나누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첫 마음’을 간직하며, 그들의 스승의 삶을 잘 따라서 살아간다면 결코 이 세상은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삶의 큰 흐름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흐름을 맞이하는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둠으로 가득한 긴 터널같이 느껴지는 삶에서도 희망할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비쳐오는 빛을 발견하고 희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이 미처 주위를 돌리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첫 마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던 열정 가득한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社說

영호남 교통망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영호남 8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시·도지사 8명은 잇그제 부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9개 공동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달빛내륙철도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철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영호남 교통망 확충은 크게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영호남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SOC 사업이다.

영호남 광역철도망은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3조7416억 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5조 원 이상),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5조7700억 원),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건설(2조3056억 원), 전주~김천 북선전철 건설(3조2970억 원),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5조3246억 원) 등 6건이다. 또 영호남 광역도로망은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

도로(2조8882억 원), 동서통합대교(남도2대교, 430억 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5040억 원) 등 3건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실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 시도지사들이 뜻을 같이 한 것은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는 대부분 건립된 지 오래됐고, 완전 전철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동서 화합과 양 지역의 동반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에 윤창현 광주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의장으로 선임된 만큼, 다음 북선전철 건설(3조2970억 원),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5조3246억 원) 등 6건이다. 또 영호남 광역도로망은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

자살까지 부른 가상화폐 광풍 대책 시급하다

가상 화폐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잃은 20대 대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과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 명문대에 입학한 수재인 데다 평소 성격도 밝은 편이었다고 한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 아침 시대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옆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000만 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해 종잣돈을 10배에 달하는 2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가상 화폐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분전도 못 찾게 됐다고 한다.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던 A씨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왔다.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2030세대는 부의 축적 방법으로 가상 화폐 투자를 최고로 판단했다. A씨는 과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 명문대에 입학한 수재인 데다 평소 성격도 밝은 편이었다고 한다.

이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다면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상 화폐 시세를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강박증을 겪거나 불면증 등이 동반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30세대는 지역·정파·정치색만으로 지지를 보내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성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가상 화폐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등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미국은 지난 2008년 마지막에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를 격상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무기 등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로, 그 지위 격상은 한국이 미국의 ‘봉’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연구 개발비, 무기 유지 관리 비용 등 9.8%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부담했다. 미국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국가와 일본·호주·뉴질

국 군사 관계자들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예컨대 전까지도 이 문제에 대담했던 그는 동기인 문 대통령에게 사안을 인계하고 군을 떠났다. 문제 제기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로부터 무·양호의 외압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모두가 이 문제를 목과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낸 대한민국 군 간부였다.

세상은 모두가 침묵하는 일에 분노하는 소수에 의해 변한다. 검찰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지금 한국인 ‘미 투’를 부담했다. 미국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국가와 일본·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해 주고 있는 비용을 한국에만 물려왔던 것이다. FMS 지위 격상을 이끌어 낸 이는 문창수 예비역 대령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권은 따로 있다. 광주 출신인 조현주 전 중령(육사 39기·전남대 연구교수)이다. 지난 2003년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 무기 구매 담당이었던 그는 백두·금강 사업 등 굵직한 국방 사업에서 한국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다수의 침묵

그는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미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추행 당사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검찰 간부를 비롯해 검찰 부서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쉬쉬했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침묵이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이 새삼 절절하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기 고

시민과 함께 꽃피우는 문학의 봄을 열망하며



김 원 식  
광주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 공동의장  
광주광역시문인협회 회장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그리고 수준 높은 시가 어우러진 ‘시화 동영상’이 독자의 가슴에 스며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아름다운 시화를 게시하여 오고 가는 시민들의 일상과 그 틈새 속에서도 서정적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시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문학의 꽃이 만발한 봄을 맞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행정기관의 도움이 주효했다.

광주는 한국 현대 문학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주는 1930년대 시문학의 핵심 멤버였던 용아 박용철 시인이 태어난 곳이며,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현대시의 한 영역을 개척한 대형 김현승 시인 등 일일이 거명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문학인들이 성장하고 문학적 결실을 맺은 문학의 본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문학관’이 없는 유일한 고장(신생 ‘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이 광주다. ‘문화 수도’라는 말이

참으로 부끄럽다. 광주시는 십 수 년 전 의미 ‘문학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벽돌 한 장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 ‘광주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새롭게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주시가 문학관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자 광주의 문단,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첫 번째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지와 열원이 집약된 결의사항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고 ‘광주문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1000인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연말까지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당초 예상보다 10배가 많은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문학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열원의 결과로 드디어 지난해 시에서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올해를 ‘광주문학관 건립의

원년’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긴 겨울을 뚫고 봄이 오듯이 광주의 문학도 이제 꽃봉오리를 맺으며 찬란한 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지역 문화 자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문화 관광 인프라인 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광주시에 주도로써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현재 활동 중인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해체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새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학관 건립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적폐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인재들로 구성하여 문화중심 도시,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문학관은 광주 시민 모두가 주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